

신공항 입지선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백년 대계와 동남권 공동 번영의 하늘길... 부산 가덕 신공항!

홍콩과 싱가포르 같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대부분은 공항과 항만이 연계된 복합물류중심도시들이다. 이에 반해 우리 부산은 세계5위의 항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된 공항이 없어 세계도시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곁에는 동남권 거점공항인 김해공항이 있으나, 김해공항은 항공소음 피해 민원으로 인해 24시간 공항운영을 할 수 없고, 2002년 중국민항기 돛대산 충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해 쪽 장애물(신어산)로 인해 안전성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해 90년대부터 김해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현 정부 들어 '동북아 제2허브공항건설'이라는 명칭으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반영되는 등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07년도에 남부권신공항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지난해 말 신공항의 입지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지난 8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공항은 한번 건설되면 100년동안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이자 국제관문이 된다. 동남권에 건설될 동북아 제2허브공항 입지는 공항의 당초건설 목적인 김해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항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물류거점으로 역할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어야 한다.

유력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 해안과 밀양 내륙의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부산 가덕도 해안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항공소음영향권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아 24시간 공항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부산신항과 인접해 있어 복합운송물류 체계 구축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남해안권에 집적된 산업단지,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부산신항,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들로 인해 신항배후철도, 가가대교 등 도로와 철도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접근성 또한 뛰어난 곳이다.

정부유역결과 공항건설비도 9.8조원으로 나타나 밀양 10.3조원으로 가덕도 해안이 공사비에서 5천억원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부산의 가덕도 해안은 공항의 당초 건설목적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경제성, 항공소음 피해 없이 24시간 공항 운영가능성을 모두 갖춘 신공항의 최적지이다. 이에 반해 밀양 하남내륙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무려 16개 이상 산봉우리를 잘라내야 한다.

잘라나가야 할 산 중에는 풍광이 수려하고 역사가 깃들여 있는 무적산, 봉화산 등 김해지역의 명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련 문중이나, 측산업자들의 극렬한 반대민원에 직면할 것이다. 설령 산봉우리를 잘라낸다고 해도 잘라낸 토



■이래서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가 최적지

구분	가덕도 해안	밀양 내륙
공사비	9.8조원	10.3조원
여객 안개일수	11일	32일
항공소음피해 주민 24시간 운영	가능	불가능
운항 장애물 (절취대상 산봉우리)	0	16개
녹지훼손 (산 절취, 도로개설)	0	993만㎡(여의도면적 1.2배)
농지훼손(황주조 건설)	0	1천만㎡
정래 환경 가능성	가능	불가(민원발생)
기타	부산신항과 인접, 국토 확장 김해공항 한계 극복	항만과 원거리, 국토 잠식 김해공항보다 여객 더 열악

사(5억㎡)가 15톤 덤프트럭 5천대대 분량으로 하루 1천대씩 동원해서 이동한다 해도 3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연구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제2허브공항은 지역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내외 전문

가들이 인정하고, 국가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덕도 해안에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 왜 인천국제공항이 지리적 중심지인 내륙에 건설되지 않고 서해안인 인천 영종도 해안에 입지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해 질 것이다.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정기 공연

25일 저녁 7시 문화회관 대극장서

부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단장 이종철 구청장)은 25일 저녁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김주곤 지휘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 합창단은 도라지꽃과 산유화 등을 부르며 관객들과 호흡하고 4개 팀으로 나눠 댄스와 뮤지컬을 가미한 공연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를 연출할 예정이다. 한편 합창단은 문화와 교육의 도시 남구를 대표하는 어린이 문화사업단으로 지난 2009년 6월 어린이들의 음악적 재능 발굴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단됐다. ☎607-4371

노래를 사랑하는 어린이를 모집 합니다

- 분야 :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약간 명
- 대상 : 남구거주 및 남구 소재 초등학교 재학 중인 3~5학년 학생
- 일시 : 2011년 4월 예정(자세한 사항은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선발 : 오디션을 통한 공개 선발
- 문의 : 남구청 문화체육과 ☎607-4371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팀은 지난 13일 남구도서관 2층 시청각실에서 학생과 일반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

부산남구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늘 착한소식만 전해주길



박태욱

남구신문이 창간 15주년을 맞았다. 벌써 그렇게 됐나 싶는데 유수 같은 세월만 눈앞을 스쳐간다. 지난 1996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월 1회, 그 달 25일을 기점으로, 8면과 12면으로 번갈아가며 한 번의 결호 없이 발행해 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저력이다.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투철한 사명감과 우보만리의 철

학을 가진 현재의 편집장을 위시하여 무보수의 전문 명예기자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열정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애독자이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히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

남구신문은 현재 13만부를 발행한다. 결코 적은 부수가 아닌 그 지면에 그동안 우리 남구의 특색인 문화·관광·교육도시의 면모를 널리 알려왔다. 남구의 어제와 오늘을 증언하고 빛낸 많은 구민들, 유명기업과 기업인들, 가슴 따뜻한 나눔의 주인공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출입국을 주도했던 막강한 산업파워가 존재했던 사실, 일제 강점기의 지옥이 남아 있는 천혜의 이기대

결정과 오류도, 용오만 일대의 명품길, UN평화공원, 남구의 랜드마크로 건설된 많은 현대시설물들, 그 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실들을 전하며 남구의 과거-현재-미래를 이어주는 문화유산들을 활자로 남기려고 애써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조금함에 빠진 오늘의 일상에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숨고르기를 하게 만들고, 우리 남구의 역사를 재인식케 하여 애郷심을 널리 북돋게 하는 일이다. 사람으로 치자면 남구신문이 15년간을 그렇게 보고, 듣고, 알리면서 삼시 세끼 꼬박꼬박 잘 잘 먹고 튼실하게 성장해 왔다는 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문득 옛말이 스쳐간다. 문헌에 따르면, 백제나 신라시대에 15살이 되는 남자를 '정남'이라 하여 성벽을 쌓는 등의 대규모 공사에 동원했다. 공자는 학문에 뜻을 둔다 하여 15살을 '지우학'이라 했다. 탐험가이자 인류학자인 미국의 존 고다드는 15살에 127개의 꿈 목록을 작성해 평생 동안 실현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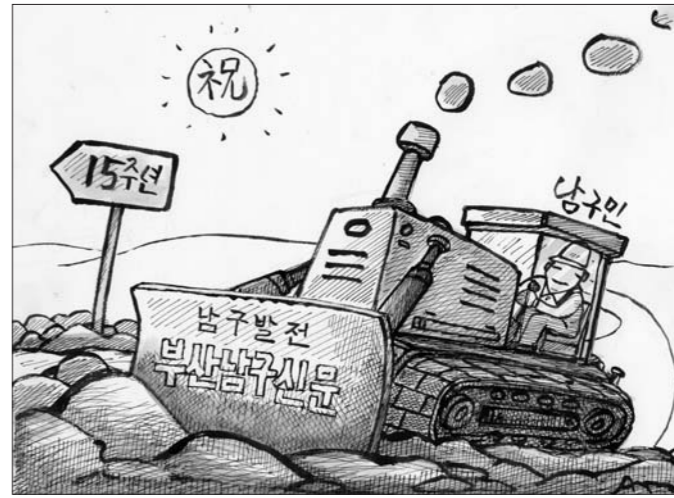
15주년을 맞은 남구신문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흔히 신문은 저널리즘에 바탕을 둔 '알림, 비판, 재미'라는 세기능이 충족되어야 한다는데, 남구신문은 알림 기능에 충실하면서 읽는 재미를 더하려고 애써왔지만 비판 기능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공통적으로 구성 살림을 직·간접으로 홍보하거나 유력인사들의 동정, 관내 행사 등을 알리는 소식지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판 기능이 없는 태생적 한계를 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

전을 하면 어떤 실험이어야 할까. 읽는 재미를 더해보면 어떨까. 예산 때문에 불가하다면 '열린 신문'을 가지로 구민들의 자발적인 소식을 후원받아 별도 색션을 추가해보는 것이다. 그것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남구신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만큼 높아지고, 커져가 쌓이는 애정만큼 애郷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은 예상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때문에 앞으로 거는 기대는 높을 수밖에 없다. 남구신문을 펼치며 더욱 다채해진 읽을거리로 신선한 문화충격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후덕한 미소와 가슴 설레는 희망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착한 소식'만 전해주었으면 더욱 좋겠다. 마침 올해는 영원한 피들이 토끼의 해다. 토끼는 풍요와 다산으로도 상징된다. 그 넉넉함만큼 남구민 모두의 살림살이가 예년보다 훨씬 풍성해졌다는 소식까지 지면 가득하길 빌어본다.

문현3동·소설가



부산남구신문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남구신문은 부산의 16개 구·군중에서 가장 먼저 창간한 구보 중 하나로 그동안 구정과 주민들의 사이를 잇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구정을 주민 삶에 녹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안기태

시사문화가·카툰작가

- 국제신문·부산일보 만화연재
- 한국시사문화가회 부회장
- 부산예술대학 겸임교수
- 부산카툰작가클럽 회장

화신사이버대학교

201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화신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신규 설립인가 제1호 정규 4년제 사이버대학교입니다.

●모집단위

학부명	전공명	모집인원	학부명	전공명	모집인원
국제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신입생 360명	국제경영학부	국제관광전공	신입생 360명
	실용일본어전공	편입생 300명		사회복지학전공	신입생 360명
	실용영어전공	편입생 300명		경영학전공	편입생 300명
				상담심리학전공 *개설예정	

●모집기간 : ~2011년 2월(예비지원 및 원서접수 중)

●지원자격 : 1. 신입생 /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2. 편입생 / 대학졸업자 및 전문학사 이상 수료자

●대표전화 : 1588-5215

●홈페이지 : www.hscu.ac.kr

등교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4년제 정규학사학위 취득가능!!

화합(和)과 믿음(信)의 교육요람 학교법인 和信學園

화신사이버대학교 HYUNSHIN CYBER UNIVERSITY

부산경상대학교 BUSAN KYUNGSAUNG COLLEGE

부산외국어고등학교 BUSA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성악, 뮤지컬, 동요 전문 레슨>



임시반

- *완전 기초부터 철저한 1:1 레슨
- *예중, 예고, 예대 전문 레슨
- *테스트 후에 레슨 여부 결정
- *뮤지컬, 실용음악 레슨

"세상에 유치는 없다." -강은미 칼럼 중-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성악과 졸업
- 안산 시립 합창단 소프라노 수석 역임
-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역임
- 서울 영락교회 독창자 역임
- 경기 은혜와 진리교회 지휘자, 연합 성가대 지휘자 역임
- KBS, MBC 음악회 게스트 출연
- 국악 동요 CD 제작
- 서울, 경기 "예소리 중점전" 장단 및 지휘자, 전국수리풍물대회
- "열려라 동요 세상" 대상 및 특별출연
- 어린이 선교합창단 장단 및 지휘자 역임
- 현, 기독교대 실용음악(뮤지컬) 음악감독 및 지도교수

취미반

- *음치라서 고민하시는 분
- *노래를 잘하고 싶으신 분
- *열심히 하실 열정만 있으시면 됩니다
- *개인 및 그룹 지도

문의전화 : 612-3547, 010-7473-3543(모든 상담은 친절히 해드리겠습니다)

옥매트가 고장났나요?

옥매트 수리는
옥매트 119입니다



출장방문 수리

옥매트 수리전문

- 돌침대 A/S
- 열선·조절기 교환
- 전자파 안벽 차단

신제품 공장직판가 판매

옥매트·거실매트·운수매트

☎ 743-7118 / 758-3119 / 011-862-9659

위치:망미동 병무청 맞은편

2년만에 예원어머니고등(중)학생 모집

배움에 목마른 어머니들은 예원으로 오세요.
부산 최고의 전통(13년)과 시설을 갖춘 학교
어머니들의 전용 공간을 갖춘 유일한 학교



▶모집안내.....

1. 대상 : 중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2. 모집기간 : 2010년 12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전화접수가능, 현재 접수중)
3. 오래된 학업포기자 편입학 가능

▶특징.....

1. 2년만에 졸업(교육부 인정 정규 졸업장 수여)
2. 중학교 : 입학금, 수업료, 책값 졸업시까지 국비지원
3. 부산에서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어머니 전용 학교)
4. 최고 오래된 전통의 어머니 전용 학교
5. 어머니 학생 전용 주차장 완비
6. 주5일제 수업 오전(10시), 오후(2시), 야간(6시) 선택 가능
7. 고등학교 졸업생 : 무시험 대학입학 가능



◆위 치 : 금정구 금사동(동일교무빌트 위)

2011년 3월 지하철 4호선 개통예정, 금사역에서 학교까지 10분거리

예원여자중학교 051)529-4430

예원여자고등학교 051)526-1852 ~ 3